

■ 교육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 시 유의할 점



대학에 원서를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학 공부에 소요되는 재정을 도움받기(Financial Aid) 위해 재정 지원 신청서를 내는 일이다. 재정 보조 신청서를 내야하는 마감일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조기전형의 경우 빠르게는 11월 1일이나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정시의 경우에는 빠르게는 2월부터 시작하여 3월 혹은 그 이후까지 대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각 서류 제출 마감 시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 보조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바로 기한에 맞춰 지원서를 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조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자금 용자를 받기 위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료 연방 학자금 신청서(FAFSA)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교육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5분의 1은 보조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연방 펠그랜트(연간 약 5,8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서류조차 내지 않아 이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계 수입이 6자리(10만 달러)를 넘는 가정들의 경우 신청서를 아예 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의 숫자,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수, 가장 나이가 많은 학부모의 나이 등도 고려해 학자금 보조를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설사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다 좋은 조건의 용자를 받을 수도 있다.

둘째, FAFSA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금 보고 관련 자료는 직전년도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가을에 대학 진학할 학생들은 부모의 2019년도 세금보고 자료로 신청할 수 있다. 보통 많은 대학들의 경우, 재정 보조는 일찍 내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FAFSA 신청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FAFSA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셋째, FAFSA 신청 시 지원하는 학교명에는 자신이 입학하고 싶은 학교만이 아닌 지원하는 모든 학교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계획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한 번에 열 군데까지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

넷째,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한 경우 또는 부모가 이혼을 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에서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 더 많은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이 더 낮은 부모 쪽에서 더 오랜 기간을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섯째, FAFSA를 제출하면, 교육부측에서 가족의 학자금 예상 지출 금액(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정해 이것에 기반해 모든 보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금액은 그 가정의 특수한 경제 상황(최근에 일어난 휴직, 실직이나 일하는 시간의 감소, 가장의 사망)을 반영하지 않기에 그 가정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잡힐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등록할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많은 금액을 보조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Sturtevant Falls - Arcadia

스터티번트 폭포는 엔젤레스 내셔널 포리스트의 멋진 폭포들 중의 하나이다. 폭포로 가는 트레일은 주차장인 Chantry Flats에서 왕복 3.25마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 주말이나 휴일에는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이다. 필자는 언제나 주차장까지 가지 않고 길가의 적당한 곳에 주차한다.



▲ 포장도로가 끝나면 저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사진=타운뉴스

주차장에서 포장된 도로를 따라 계곡으로 내려간다. 0.4마일 정도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작은 길이 나오지만 그대로 포장도로를 따라 내려간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철제 다리를 건너면 Roberts Camp에 도착한다. 이 캠프에는 숙박시설과 식당이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예전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곳에서 길이 좌우로 갈라지는데 폭포로 가는 길은 오른쪽이다.

거기서 폭포까지는 계속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걷게 되며 물 건너에는 캐빈들이 자리 잡고 있다. Roberts Camp에

서 1.3마일 정도 가면 Sturtevant 폭포가 나타난다.

■ 가는 길: 오렌지카운티에서 5번을 타고 북상하다가 605 북쪽 방향으로 갈아타고 210번 서쪽 방향으로 바뀌 타다. Santa Anita Avenue에서 내려 우회전하여 산쪽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길이 끝나는 지점이 Chantry Flats이며 트레일 헤드이다.



▲ 스투티번트 폭포. 사진=타운뉴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